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네트워크 참가 보고

(Asia Pacific Hospice Network)

홍영선(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부회장)

제

2회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네트워크 모임은 1997년 2월 21일부터 23일 사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의 Life Planning Center에서 아시아 9개국의 호스피스 관계자 11명을 초청하였고 일본의 히노하라 박사가 회장인 이 모임(APHN)은, 아시아 지역의 호스피스/완화치료 관계자들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지역내에서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싱가폴의 Assisi Home & Hospice의 medical director인 Cynthia Goh박사와 Western Australia의 호스피스 교육 consultant인 Ms. Joy Brann이 공동의장이 되었고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사흘의 모임중 이틀은 아시아 지역 호스피스의 문제점과 요구가 무엇이며 그의 해결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은 일본 전역에서 호스피스 관계자 400여명이 모여 forum이 개최되었는데 지역의 완화치료의 발전 방향, 호스피스에 지역사회의 참여방안 그리고 호스피스 활동중 만나는 윤리적 문제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다.

문화적, 재정적,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각 나라의 호스피스의 발전과 전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개발도상 국가들에 있어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투자 여건이 빈약하거나 아니면 제도의 미비로 국가 전체적인 호스피스 발전이 늦어지게 되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고 그의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번 모임에서 각 나라의 대표들은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분명히 하였다.

“호스피스/완화치료에서는 단 일초의 삶이라도 귀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Asia Pacific Hospice Network은 한 개인의 삶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행동도 지지하지 않는다.”